

分裂時代의 外交競爭

- 魏晉南北朝時期 中韓關係 述評 -

陳 尙 勝

‘韓’은 최초로 한반도 남부의 三韓 部落에서 나왔는데, 그 이름은 中國 史書 『三國志』 魏志에 처음 보인다. 1) 부락에서 국가로 성장한 三韓의 발전 과정은 바로 중국의 魏晉南北朝 시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중국 魏晉南北朝의 정치적 분열과 대립, 그리고 한반도의 여러 정권이 병존하는 정치국면이 中韓關係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하는 것은 충분히 연구·토론할만한 문제이다.

1

한국의 역사는 전설상의 檀君朝鮮과 箕子朝鮮부터 衛滿朝鮮과 漢四郡時代를 경유한 다음에 비로소 三國時代로 진입했다. 앞에서 말한 몇몇 정권의 지리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모두 조선 반도의 북부에 있다. 漢朝 政府가 한반도의 북부에 郡縣을 설치했을 때, 한반도의 남부에는 세개의 部落聯盟集團, 즉 馬韓과 辰韓, 弁韓 등 역사에서 ‘三韓’이라 이르는 것이 형성되었다.

1) 『後漢書』 115 東夷傳에도 ‘韓’에 대한 전문적 기사가 기재되어 있지만, 『後漢書』는 南朝 宋의 范曄가 撰하였는데 비해 『三國志』는 西晉의 陳壽가 撰한 것으로 中國 正史중에서 가장 일찍 ‘韓’의 정황에 대해 기재하였기 때문에, 『三國志』를 더 중시한다.

三韓 가운데서 서쪽에 위치한 馬韓이 가장 컸다. 『後漢書』에 의하면, “馬韓은 서쪽에 있는데, 54국이 있으며, 그 북쪽은 樂浪, 남쪽은 倭와 접해 있었다.”²⁾ 이른바 ‘54국’이라 한 것은 실제로는 54개의 部落이었다. 『三國志』에 의하면, 馬韓은 “모두 50餘國으로, 大國은 萬餘家이고 小國은 數千家이니, 모두 10餘萬戶다.” “그 풍속은 기강이 잘 서 있지 않아서, 國邑에 비록 主帥가 있어도 邑落에 뒤섞여 살기 때문에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다. 굶어 앓아 절하는 禮가 없다. 거처는 草家에 土室을 만들어 사는데, 그 모양은 마치 무덤과 같으며, 그 문은 윗부분에 있다. 온 집안 식구가 그 속에 함께 살며, 長幼와 男女의 분별이 없다. 그들의 장례에는 棺은 있으나 槨은 사용하지 않았고, (葬禮시에) 소나 말을 타려 하지 않고 소나 말은 모두 시체의 운반에 쓴다. 옥이나 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하지만, 金銀과 錦繡는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람들의 성질은 굳세고 용감하다. 머리칼을 틀어 묶고 상투를 드러내는데 마치 날카로운 兵器와 같다. 배로 만든 두루마기를 입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고 발을 약간높이 들고 걷는다. 그 나라 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官家에서 城郭을 쌓게 되면, 용감하고 건장한 젊은이는 모두 등의 가죽을 뚫고, 새끼줄로 그곳을 꿰뚫은 다음 1丈쯤 되는 나무막대를 끼워달고 온종일 소리를 지르며 힘을 쓰는데, (이를) 아프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작업하기를 권하며, 또 이를 강건한 것으로 여긴다.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술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춤은 수십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로 서로 장단을 맞추는데, 그 가락과 율동은

2) 『後漢書』 115 東夷傳

(中國의) 鐸舞와 비슷한 점이 있다.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國邑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서 天神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天君이라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 別邑이 있으니 그것을 蘇塗라 한다. (그 곳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³⁾

辰韓은 馬韓의 동쪽에 있다. 辰韓은 秦韓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 이것은 秦나라의 苦役을 피해 도망은 중국인이 馬韓의 경계에 도달했을 때, 馬韓人이 그 동부 지역을 넘겨주어 부락을 형성하여 거주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秦나라의 언어 습관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말은 馬韓과 달라서 나라를 邦이라 하고, 활을 弧라 하고 도적을 寇라 하고, 술잔을 돌리는 것을 行觴이라 한다. 서로 부르는 것을 모두 徒라 하여 秦나라 사람들과 비슷하니, 단지 燕나라나 齊나라 사람들이 사물을 호칭하는 것이 (이곳에 전하여진 것)만은 아니다... 처음에 6국이던 것이 차츰 나뉘어져서 12국이 되었다.”⁴⁾ 辰韓은 처음에 6개 부락이었으며 뒤에 12개 부락으로 나뉘어졌다. 弁韓은 辰韓의 남쪽에 있다. 『三國志』의 기사에 의하면, 弁韓 역시 12개 부락으로 나뉘어 있었고, “여러 작은 別邑이 있어서 제각기 渠帥가 있다... 大國은 4-5千家이고, 小國은 6-7百家이다.”⁵⁾ 三韓 부락에는 각기 尊長이 있었는데, 어떤 尊長은 일찌기 漢의 樂浪郡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심지어 馬韓과 辰韓의 몇몇 부락은 北方人이 南遷하여 남방의 토착인들과 雜居하면서 移民社會를 형성한 것이다. 그 한 예로, 箕準王이 衛滿의 공격을 만나 남쪽

3) 『三國志』 30 三韓傳

4) 『三國志』 30 三韓傳

5) 『三國志』 30 三韓傳

으로 피해 馬韓에 이르러 “馬韓을 공격하여 이를 破하고 스스로 韓王이 되었다.”⁶⁾

三韓 부락 가운데 몇몇 北部 부락은 漢四郡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三國志』에 의하면 “郡에 가까운 그 북쪽의 諸國은 禮俗을 조금 안다.”고 하였다⁷⁾. 이른바 “郡에 가까운 諸國”이란 바로 漢四郡에 인접한 부락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그들은 중국의 정치문화의 영향아래 계속해서 고대 국가 건설의 길로 나아갔다.

馬韓 부락 집단 가운데 百濟部가 먼저 강성해졌다. 百濟는 원래 馬韓의 54개 부락의 하나인데, 기원전 18년에 북부에서 남하한 高句麗 왕자 溫祚가 일부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한강 유역의 百濟部에 이르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한강 북쪽의 慰禮(지금의 서울 부근)에 王城을 건립하여 나라 이름을 百濟라고 불렀다. 이후 그들은 王都를 한강 남쪽의 漢山(지금의 경기도 廣州)로 천도하였다. 東漢末에 百濟王 仇首(214-233년 재위)가 遼東과 한반도 북부에 할거한 公孫康의 딸을 취하여 妃로 삼아, 그 인척 관계에 의해서 중국의 할거 세력인 公孫康집단의 지지를 얻었다. 百濟는 이로써 강성해지기 시작했으며 차츰 馬韓의 다른 부락을 통일해갔다. 古爾王(234-285년 재위) 통치시기에 百濟는 처음으로 奴隸制國家體制를 갖추었다. 『周書』에 의하면 古爾王 27년에 百濟에서 16品の 官階制가 시행되었다. “左平은 5명으로 一品이고, 達率은 30명으로 二品, 恩率은 三品, 德率은 四品, 杆率은 五品, 柰率은 六品이다. 六品 이상은 冠을 銀華로 장식하였다. 將德은 七品으로 紫帶를 두르고, 施德은 八品

6) 『後漢書』 115 東夷傳

7) 『三國志』 30 三韓傳

으로 白+七帶, 固德은 九品으로 赤帶, 季德은 十品으로 靑帶를 각각 들었다. 十一品 對德과 十二品 文督은 모두 黃帶를 두르고, 十三品 武督과 十四品 佐軍, 十五品 振武, 十六品 克虜는 모두 白帶를 들었다. 恩率 이하는 일정한 정원이 없고 각기 部署가 있어서 여러가지 사무를 나누어 관장하였다.”⁸⁾ 중앙관제를 건립한 기초 위에서, 古爾王은 다시 국왕의 권위를 강화하였다. 韓國의 史書 『三國史記』에 의하면, 古爾王 “28년 봄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자색의 큰 소매달린 옷과 푸른 비단 바지를 입고 금 꽃으로 장식한 烏羅冠을 쓰고 흰 가죽띠를 두르고 검은 가죽신을 신고 南堂에 앉아서 政事를 처리하였다.”고 하였다.⁹⁾ 여기에서의 ‘南堂’은 중국의 明堂制度和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禮記』 明堂篇에 의하면, ‘明堂’은 고대 帝王이 政敎를 선포하여 밝힌 곳이다. 무릇 朝會, 祭祀, 慶賞, 選士, 養老, 敎學 등의 大典은 모두 이곳에서 거행하였다. 『禮記』 月令篇에 의하면, 明堂은 南向 건물이다. 『周易』 說卦篇에 이르기를, “聖人이 南面하여 天下를 주관하니 밝게 다스려졌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南堂’制度는 곧 明堂制度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三韓 중에서 辰韓部落集團은 斯盧部落을 기반으로 하여 점차 統一國家의 길로 나아갔다. 대략 紀元을 전후해서, 斯盧部落은 金城(지금 한국의 慶州)을 중심으로 六部를 연합하여 部落聯盟을 이루었는데, 酋長은 朴·昔·金의 세 姓氏에서 나왔다. 部落聯盟의 초기에는 巫俗信仰이 매우 보편적이었다. 韓國史書의 기록에 의하면, 그 초기의 王은 모두 巫術에 능통하였다. 예를 들어 “南解王 次次雄(기원후 4-23년 在位)은 흑 慈充이라고 하였다. 金大問이 말하기를 ‘(次次雄은) 方言으로 무당(巫)을 일컫는 것인

8) 『周書』 49 百濟傳

9) 『三國史記』 23 百濟本紀

데, 세상 사람들은 무당이 鬼神을 섬기고 祭祀를 숭상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공경하였다.'라고 했다."10)는 구절이 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다른 민족에게서도 일찌기 존재하였다. 옛사람들은 무당이 天意와 통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을 영도할 수 있었다. 奈勿王 때에 이르러 朴·昔의 두 姓氏는 다시 部落聯盟의 首領을 맡지 못하고, 金氏 姓의 世襲的 王權이 형성되었다. 이때부터 國家體制도 점차 건립되었다. 502년에 智證王(500-514년 在位)은 殮을 내려 殉葬의 시행을 금지하였다. 우리는 또한 中國문화가 斯盧部落集團에게 모종의 영향을 끼쳤음을 볼 수 있다. 『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智證王 “3년 봄 3월에 殮을 내려 殉葬을 금지하였다. 전에는 國王이 薨하면 男女各 五人을 殉葬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금지하였다.”11)고 되어있다. 이른바 ‘薨’이라는 것은 바로 周禮에서 諸侯가 사망했을 때 부른 칭호였다. 또 殉葬을 금지하였다는 것도 中國 儒學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가능성이 큰데, 孔子 당시에 殉葬문제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여 “처음으로 俑을 만든자는 그 後孫이 없을 것이다.”12)라고 하였다. 503년 斯盧部落은 中國의 慣習을 모방하여 國號를 “新羅”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史書의 기록에 의하면, 그 해 겨울 10월에 “여러 臣下들이 上奏하기를 ‘始祖의 창업이래 國名이 정해지지 않아, 혹은 斯羅라고도 하고, 혹은 斯盧라고도 하며, 혹은 新羅라고도 했다. 臣들이 생각컨데, 新은 德業이 날로 새로와진다는 뜻이고, 羅는 羅四方이라는 뜻이니, 곧 國號로 삼기에 합당하다. 또한 살펴보건데, 옛부터 國家를 소유한 자는 모두 帝를 칭하고 王을 칭하였다. 우리 始祖가 나라를 세운 이래로 지금

10)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1) 『三國史記』 4 新羅本紀

12) 『孟子』 梁惠王上

22세에 이르기까지 다만 方言으로 칭했을 뿐, 尊號를 정하지 않았다. 지금 여러 신하들이 뜻을 합하여, 삼가 新羅國王이라는 尊號를 바친다.”¹³⁾라고 하였다. 그후, 新羅는 또 中國의 政治制度를 모방했고, 계속해서 喪服法·州郡縣制·諡法·律令·紀元 등의 制度를 반포하였다. 아울러 517년에는 中央에 우선 兵部를 설치하고, 그 후 차례로 上大等の 官職과 位和府·調府·乘部 등의 機構를 설치하여 國家體制를 완비하였다. 532년에서 562년 사이에 강성해진 新羅는 또한 弁韓이 소유한 部落을 통일, 洛東江유역을 완전히 점유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원래 朝鮮半島 南部의 三韓部落聯盟集團의 기초 위에, 百濟(西部)와 新羅(東部)의 兩國家가 각각 형성되었다.

그외에, 기원전 37년, 中國 東北지역에서 흥기한 高句麗는 일찌기 紇升骨城(현재 遼寧省 桓仁縣)과 國內城(현재 吉林省 集安縣)을 차례로 都城으로 삼았다. 高句麗人의 대다수는 狩獵으로 생활했는데, 강하고 사나워서 싸움을 좋아하였다. 그 세력이 날로 성장해서 313년에서 314년에 걸쳐 西晉의 樂浪郡과 帶方郡을 병합하였다. 427년, 長壽王(413-419년 在位)은 朝鮮半島 內의 平壤으로 遷都하였다. 이에 朝鮮半島에는 百濟·新羅·高句麗의 三國이 패권을 다투는 정치국면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韓國歷史에서 ‘三國時代’로 불리워진다.

中國方面에서는 東漢王朝의 전복과 三國鼎立의 開始 이래로, 역시 다수의 封建政權이 并存하는 정치국면에 들어갔다. 이에 中國과 朝鮮半島의 각개 政權 사이에는 각자가 天下를 다투어서로 往來하고 合從連橫함으로써 일정한 외교경쟁의 국면이 형성되었다.

13) 『三國史記』 4 新羅本紀

2

高句麗政權은 일찌기 中國 東北에 있었던 기간에 東漢 · 魏 · 西晉 · 後趙 · 前燕 · 前秦 · 後燕 · 南燕 · 北燕 등의 政權과 정치적으로 朝貢關係를 유지하였다. 平壤으로 遷都한 후에도 高句麗는 朝鮮半島의 三國 중, 中國과 지리적으로 계속해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中國南北朝의 여러 政權과 外交往來하는 형세를 취했다. (<表 1> 참고)

<表 1> 高句麗가 中國 南北朝 및 隋朝와 交通한 狀況表

高句麗王 南北朝	長壽 (413-491)	文咨 (492-518)	安藏 (519-530)	安原 (531-544)	陽原 (545-558)	平原 (559-589)	瓊陽 (590-617)	合計
宋(420-479)	1 \ 22							1 \ 22
齊(479-501)	\ 2	\ 1						\ 3
梁(502-556)		1 \ 2	1 \ 5	\ 4				2 \ 11
陳(557-589)						1 \ 6		1 \ 6
北魏(386-534)	2 \ 42	1 \ 33	1 \ 2	1 \ 2				5 \ 79
東魏(534-550)				1 \ 10	\ 5			1 \ 15
北齊(550-577)					\ 3	1 \ 3		1 \ 6
北周(556-581)						\ 1		\ 1
隋朝(581-618)						\ 9	1 \ 5	1 \ 14

(참고 : 이 表는 中國의 『宋書』 · 『南齊書』 · 『梁書』 · 『陳書』 · 『魏書』 · 『北齊書』 · 『周書』 · 『南史』 · 『北史』 · 『隋書』 중의 帝王本紀와 朝鮮半島三國傳, 그리고 『冊府元龜』의 外臣部와 『太平御覽』卷 781 중의 記載에 의거한 것으로서, 韓國의 『三國史記』의 기록과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이 서적들에는 당시 中韓 쌍방의 外交往來의 기록에 대해 누락된 것도 있다. 단, 이 史書들에 기재된 回數는 당시의 外交狀況을 충분히 반영한다. 아래 쪽의 百濟, 新羅 兩國과 中國封建政權과의 交通狀況에 대한 근거자료는 이 表와 같으므로 다시 열거하지 않는다. 이 表 중에서 “ \ ” 앞의 숫자는 中國측의 高句麗에 대한 使臣派遣回數이고, “ \ ” 뒤의 숫자는 高句麗의 中國측에 대한 使臣派遣回數이다.)

위 表의 숫자로 볼 때, 高句麗의 中國北朝(정치중심이 吉林集安에 있을 때의 高句麗의 後趙·前燕·前秦·後燕·南燕·北燕 등 北朝에 대한 使臣派遣回數는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한 使臣派遣回數는 101회이다. 그 중, 高句麗가 北魏에 파견한 使臣의 회수는 79회, 東魏에는 15회, 北齊에는 6회, 北周에는 1회이다. 그런데 中國北朝의 여러 政權이 高句麗에 파견한 使臣의 회수는 단지 7회이다. 그 중 北魏가 파견한 것이 5회, 東魏와 北齊가 파견한 것이 각각 1회이다. 中國南朝政權과 왕래한 상황을 살펴보면, 高句麗는 南朝에 42회의 使臣을 파견하였다. 그 중 宋에 파견한 使臣은 22회, 齊에는 3회, 梁에는 11회, 陳에는 6회이다. 그런데 南朝에서는 宋과 陳이 각각 1회, 梁이 2회에 걸쳐 高句麗에 使臣을 파견하였다. 隋가 中國을 통일한 후, 高句麗는 隋에 14회, 隋는 高句麗에 1회의 使臣을 파견하였다. 이후 高句麗는 계속해서 唐에 20회의 使臣을 파견, 朝貢했지만, 唐은 高句麗에 4회의 使臣을 파견하였다. 高句麗政權과 隋王朝의 외교가 비교적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전쟁의 비극은 피할 수 없었다. 隋煬帝는 高句麗에 대해 세 차례의 전쟁을 일으킨 후 나라를 잃었고, 唐太宗도 高句麗를 침략했으나 실패하였다. 隋唐王朝가 이처럼 高句麗에 대한 전쟁에 몰입했던 까닭은, 영토전쟁의 원인 외에도 百濟, 新羅가 자신들의 정치적 맞수인 高句麗에 타격을 주기 위해 隋唐王朝에 실시한 외교의 영향이었다.

漢江 하류에 都邑을 건설한 百濟는 『晉書』에 의거하면 이미 A.D.272년에 使臣을 보내어 중국의 晉朝政權과 通交하였으며, 그 이후 “武帝 太康元年(280年)과 二年에 그 君主가 자주 使者를 파견하여 方物을 入貢하였다. 七年과 八年, 十年에도 왔다. 太熙元年(290年)에는 東夷校尉 何龕에게 가서 上獻하였다.”¹⁴⁾ 그 후, 中

14) 『晉書』 9 簡文帝紀; 97 馬韓傳

國 국내의 동란으로 東晉王朝가 江南으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百濟國은 변함없이 바다를 건너 東晉 및 이후의 南北朝政權에 使臣團을 파견하였다.(〈表 2〉 참조)

〈表 2〉 百濟와 中國封建政權의 通交 情況表

南北朝	東晉 (317 -420)	宋 (420 -479)	南齊 (479 -501)	梁 (502 -556)	陳 (557 -589)	北魏 (386 -534)	北齊 (550 -577)	北周 (556 -581)	隋 (581 -618)
百濟王	2\								
近肖古 (346-374)	2\								
近仇首 (375-383)	1\								
枕流王 (384)	1\1								
月典支王 (405-419)	2\1								
久爾辛 (420-426)		3\1							
毗有王 (427-454)		5\1							
蓋彌王 (455-474)		4\				1\1			
東城王 (479-500)			4\1						
武寧王 (501-522)				2\					
聖王 (523-553)				3\					
威德王 (554-597)					4\1		2\	2\	3\
合計	6\2	12\2	4\1	5\	4\1	1\1	2\	2\	3\

(表 중의 '\ 앞은 百濟가 中國봉건정권으로 使節團을 파견한 숫자, "\ 뒤는 중국 봉건정권이 백제로 사절단을 파견한 숫자)

〈表 2〉에 따르면, 百濟國의 對華外交의 중심은 南朝방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百濟는 東晉에 도합 6次的 使節團을 파견했고, 宋朝에 12次的 使團, 南齊로는 4次, 梁朝에 5次, 陳朝에 4차의

사절단을 파견해서, 도합 26次의 使團이 있었다. 그리고 東晉에서는 백제로 2次의 사단을 파견했고, 南朝의 宋·齊·梁·陳 4개 정권은 百濟로 사절단을 도합 4차례 파견했다. 百濟는 일찍이 北朝의 北魏·北齊·北周 3개정권에 도합 5차의 사절단만 파견했다. 그리고 北朝는 北魏가 百濟로 파견한 사절단이 1차만 있다. 이후, 百濟는 威德王 시기에, 일찍이 隋朝로 3차에 걸쳐 通使했고, 惠王시기(598년 재위)에 1차, 武王시기(600-640)에 4차례 通使했다. 隋朝도 百濟에 1차례 通使했다. 그 밖에, 百濟는 唐朝와 21차례 通使했고, 唐朝에서는 3차례에 걸쳐 사절단을 回派했다. 이것으로 미루어, 百濟와 中國 봉건정권의 외교왕래가 점차로 밀접해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新羅는 지리상으로 한반도의 동남쪽에 偏居해 있고, 게다가 일찍이 倭軍의 침입을 받아 外交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3국 중에 中國과의 외교에 가장 늦게 참여하였다. 377년, 新羅 奈勿王(356-401년 재위)은 사절단을 파견하여서 高句麗 사신을 따라 前秦에 朝貢하였고, 이것이 新羅의 對中國 외교의 시초이다. 이에 따라서 新羅의 對華 외교 역시 점차 강도를 높여갔다(<表 3> 참조).

<表 3>에 따르면, 新羅는 일찍이 前秦으로 사절단을 두차례 파견했고, 北魏로는 사절단을 2차례 파견했으며, 北齊로는 사절단을 두차례 파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前秦과 北魏는 각각 일찍이 新羅로 1차례 사절단을 파견하여 回訪케 했다. 동시에, 新羅는 사절단을 파견하여 百濟 사절단을 따라 中國 南朝로 가서 通交하게 한 바 있다. 新羅는 일찍이 梁朝로 사절단을 한차례 파견했고, 陳朝로 사절단을 8차례 파견했다. 梁·陳 兩朝도 일찍이 新羅로 각각 한차례씩 사절단을 파견해서 回訪케 했다. 이

이후의 隋唐時代에는, 新羅는 對華外交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

<表 3> 新羅와 中國 南北朝 및 隋唐의 通交 情況表

南北朝 新羅王	梁	陳	前秦	北魏	北齊	隋
奈勿王 (356-401)			2\1			
智證王 (500-513)				2\1		
法興王 (514-539)	1\1					
眞興王 (540-575)		5\1			2\	
眞智王 (579-578)		2\				
眞平王 (579-631)		1\				7\
合計	1\1	8\1	2\1	2\1	2\	7\

다. 新羅는 일찍이 7차례에 걸쳐서 隋朝에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아울러 唐初 621-668년의 48년의 기간중에, 新羅는 唐朝에 32차례의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唐朝 역시 10차례의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당시 한반도의 3국과 중국 봉건정권과의 외교 모형에 따라 살펴보면, 한반도 삼국은 모두 朝貢國의 신분으로 中國 封建政權과 外交的 왕래를 하였고, 일부 中國 封建政權은 전부터 通貢하고 있던 韓半島 정권에 대하여 冊封을 진행하였다. 中國 南北朝政權이 韓半島 3국 정권을 冊封한 구체적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상의 표에서 보면, 高句麗王은 거의 中國 南朝와 北朝정권에 의해 보편적으로 冊封을 받았다. 百濟王에 대한 冊封은 주요하게

<表 4> 中國 南北朝政權이 韓半島 三國을 冊封한 狀況表

	高 句 麗	百 濟	新 羅
東 晉	高句麗의 정치 중심은 遼東에 존재. 晉朝는 일찍이 413년 高句麗王을 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樂浪公에 冊封.	416년, 百濟王을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에 冊封.	
宋	高句麗王을 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大將軍·高句麗王·樂浪公에 冊封. 422년, 散騎常侍와 營平州諸軍事에 대하여 冊封하였음. 463년, 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에 冊封.	처음으로 百濟王을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百濟王에 冊封. 이후 또 百濟王의 武臣 11명을 將軍에 冊封.	
南 齊	79년, 高句麗왕을 使持節散騎常侍都督營平二州諸軍事·驃騎大將軍·高麗王·樂浪公에 冊封. 494년, 새로 卽位한 高句麗王에 대하여 征東大將軍을 고쳐 除授함.	百濟王을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百濟王에 冊封. 더불어 그 臣下중 많은 사람을 將軍에 冊封.	479년, 新羅王을 輔國將軍·加羅王에 冊封.(按:加羅는 후에 新羅人에게 併呑된 加那部落으로 보임.)
梁	高句麗王을 使持節散騎常侍都督營平二州·車騎大將軍·高麗王·樂浪郡公에 처음으로 冊封. 508년, 鎮東大將軍·開府儀同三司에 고쳐 冊封. 520년, 安藏王 襲을 使持節督營平二州諸軍事·寧東將軍에 冊封.	502년, 百濟王을 征東將軍에 冊封. 521년,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百濟王에 冊封. 524년, 聖王을 使持節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에 고쳐 冊封.	
北 魏	처음으로 太武帝가 畏壽王을 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薊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에 冊封. 孝明帝때에는 安藏王을 安東將軍·領薊東夷校尉·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에 冊封. 그후에 또 安原王을 使持節散騎常侍·車騎大將軍·領薊東夷校尉·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에 冊封.		
東 魏	孝靜帝가 安原王을 侍中·驃騎大將軍·領薊東夷校尉·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에 冊封.		
北 齊	文宣帝가 陶原王을 使持節侍中·驃騎大將軍·領東夷校尉·遼東郡公·高麗王에 冊封.	齊後主가 일찍이 平原王을 使持節侍中·車騎大將軍·帶方郡公·百濟王에 冊封.	565년, 眞興王을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에 冊封.
北 周	577년, 武帝가 平原王을 上開府儀同大將軍·遼東郡公·遼東王에 冊封.		

(위의 표는 『宋書』, 『南齊書』, 『梁書』, 『魏書』, 『北齊書』, 『周書』, 『南史』, 『北史』 등의 책의 관련기사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음.)

南朝에서 행하였다. 新羅國王은 中國 南北朝시기를 통하여 오직 北齊의 冊封만을 받았다. 中韓外交史에서 冊封의 현상은 확실히 中國 封建政權의 정권과시의 일종의 표현으로, 중국의 禮儀와 文化를 국가관계속에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朝鮮半島 3國은 기쁜 마음으로 이러한 冊封을 받고, 심지어 (百濟같은 국가가) 이러한 종류의 冊封을 爭取하기까지 한 것은 그들이 中國 封建王朝의 이러한 冊封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朝鮮半島 3國이 中國 南北朝로부터 받은 冊封의 차별적 상황은 실제로는 朝鮮半島 3國의 지리적 위치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對華外交에 대한 비중의 정도, 그리고 빈도와 상관이 있다.

3

당시 中國과 韓國 쌍방이 파견한 외교사절단의 빈도수 분포의 정황으로 본다면, 韓半島 3국이 中國으로 파견한 외교사절단의 횡수가 中國의 여러 봉건정권이 그들 (韓半島) 삼국에게 파견한 외교사절단의 횡수를 훨씬 상회한다. 이러한 한가지 사실은 朝鮮半島 3國의 中國 諸政權에 대한 외교가 더욱 적극적이었고 또 한 주도적이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韓半島 3國은 어째서 모두가 中國의 각 봉건 정권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하였을까?

원래 韓半島 3國의 정립과 경쟁의 상황은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모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자국에 대한 中國 봉건왕조의 지지를 얻음으로서 자국의 정치실력을 증강하고 아울러 자국의 경쟁 상대에게 타격을 가하게끔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中國 南北朝

時期的 정치적 분열의 정세 아래에서 韓半島의 三國은 또한 모두 적극적으로 北朝와 南朝의 雙方外交를 전개함으로써 외교적으로 더욱 많은 바깥 세력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百濟는 본래 中國 南朝의 劉宋 政權과 일관되게 가까운 정치 관계를 유지하였다. 劉宋 정권은 百濟 국왕의 封號에 대해서도 원래 東晉 왕조가 冊封한 '持節都督百濟諸軍事 鎮東將軍 百濟王'에 더하여 '持節都督百濟諸軍事 鎮東大將軍 百濟王'이라고 冊封하였다. 그러나 劉宋 정권에서 百濟 國王의 冊封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百濟는 또한 적극적으로 사절단을 中國 北朝의 北魏 정권에 파견하여 朝貢하였고, 아울러 朝貢 國書 가운데서 특별히 北魏를 향하여 高句麗가 "不義하고 逆詐함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길으로는 의효의 藩卑之辭를 思慕하는척 하면서 안으로는 凶福豕突之行을 품고, 혹은 南으로 劉氏(南朝 劉宋政權을 가리킨다)와 通하고 혹은 北으로 蠕蠕과 約하여 서로 唇齒의 관계를 이루면서 王略을 능멸하려 꾀하였다."고 '揭發'하였다. 실제로 百濟國 자신과 劉宋정권의 외교 왕래는 또한 高句麗의 경우보다 적은 적이 있었는가? 百濟가 이와 같은 내용을 거론한 목적은 바로 北魏가 군대를 내어 高句麗를 토벌함으로써 자국이 받는 高句麗의 팽창 압력을 줄이려는 데에 있다. 百濟國王은 이 朝貢國書의 끝부분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北魏 獻文帝에게 군사를 동원하여 高句麗를 공격할 것을 청구하면서 "지금 만약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장차 後悔를 남기게 될 것이다." "陛下는 天地의 氣를 습하고 山海를 기울일만한 勢力을 갖고 있으면서, 어찌 小豎로 하여금 天遠를 가로막게 놓아둘 수 있는가."¹⁵⁾라고 하였다. 다행히도 獻文帝 拓跋弘은 결코 한 반도의 三國 분쟁에 끼어 들기를 원하지 않아, 百濟가 이와 같이 北魏 외교의 카드를 던져 高句麗를 제압하려

15) 『魏書』 100 百濟傳

는 전략은 소기의 효과를 결코 얻지 못하였다. 오래지 않아 百濟는 北魏가 자국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北魏에 대한 朝貢을 중단하였다. 동시에 百濟王은 또한 南齊가 高句麗王을 '驃騎大將軍'으로 冊封한 사정을 모두 듣고 또한 바로 분주하게 사신을 보내 表를 올려 內附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百濟는 외교적으로 北魏를 멀리한 까닭에 결국에는 도리어 488년에 北魏의 공격을 받았다. 비록 史籍에는 결코 北魏의 이 시기 군사행동과 高句麗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당시 高句麗와 北魏의 외교 정세로 본다면, 488년의 2월, 4월, 閏 9월에 高句麗는 바로 세차례에 걸쳐 사절을 北魏에 보내 조공하였으니,¹⁶⁾ 그 외교 관계의 빈도수는 常軌를 벗어난 것으로 北魏가 高句麗의 외교적 영향을 받아 百濟를 정벌한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百濟는 일찍이 陳朝와 4차에 걸쳐 通貢하였고 陳朝 또한 일찍이 자발적으로 사절을 한차례 파견하여 우호관계를 과시하였으나 百濟가 隋朝가 陳朝를 평정한 소식을 듣고는 威德王은 곧 隋朝에 사신을 파견하여 平陳의 성공을 축하하였다. 이후 百濟는 곧 자국과 隋朝의 通貢 관계를 통하여 수차례 걸쳐 隋 皇帝에게 高句麗 토벌을 요구하였고 또한 출병하여 연합할 것을 원하였다. 최후로 百濟는 마침내 공명심 가득한 隋煬帝 面前에서 隋朝의 군대로 高句麗를 정벌하는 외교 결과를 얻어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朝鮮半島의 三國은 현실의 생존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中國 봉건왕조에 대한 외교를 전개하여 中國 봉건정권의 자국에 대한 지지를 얻는 것이 바로 당시 朝鮮半島 三國이 적극적으로 中國 南北朝政權과 외교 교섭을 진행한 주요 원인이다.

韓半島 三國의 적극적인 中國과의 교섭 왕래는 또한 中國으로

16) 『魏書』 7下 高祖紀

부터 선진적인 문명 성과를 흡수하여 자신의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450년 百濟가 中國 南朝의 劉宋政權에 파견한 사절의 직접적인 목적은 “『易林』, 『式占』, 腰弩 등을 구하는 것”¹⁷⁾이었다. 南朝 蕭梁政權의 시기에 百濟 國王은 “여러 차례 使節을 보내어 方物을 바침과 동시에 『涅槃』, 等經과 『毛詩』 博士와 工匠 및 畫師 等を 요청하였다.”¹⁸⁾ 百濟 통치자가 이와 같이 中國으로부터 문화를 흡수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로 韓半島 三國이 일관되게 中國문명의 성과를 흡수하려는 정책 때문에 中國의 經史書籍과 軍事器具 등이 이 지방에서 매우 유행하였다. 史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의 高句麗에는 “『五經』, 『三史』, 『三國志』, 『晉陽秋』 등의 책이 있고 兵器는 中國과 대체로 같다.”라고 하였다. 百濟人은 “風俗이 騎射를 숭상하고 아울러 文史를 애독하여 뛰어난 자는 자못 文章을 엮을줄도 알며 史事에도 능숙하였다. 또 醫藥, 蓍龜 및 相術, 陰陽, 五行法에 대해서도 알았다. 僧尼가 있고 寺塔은 많지만 道士는 없다. 鼓角과 篳篥, 箏, 笙, 篳篥 등의 樂器가 있고, 投壺, 樗蒲, 弄珠, 握朔+木 등의 여러 오락이 있었는데, 특히 奕棋를 좋아한다. 宋의 元嘉歷을 사용하여 寅月을 歲首로 삼았다. 稅는 布, 絹, 絲, 麻 및 米 등으로 부과하였는데, 그해의 豐儉에 따라 差等을 두어 징수하였다. 그 刑罰은 反叛한 자, 後退한 軍人 및 殺人者는 斬하였다. 도둑질한 자는 귀양보내는 동시에 그 贓物의 倍를 징수하였다. 婦女로서 奸淫한 자는 夫家의 奴婢로 삼았다. 婚娶하는 禮는 中國의 풍속과 대략 같다.” 이 시대의 新羅도 또한 이미 발전하여 “지방에는 郡縣이 있고, 그 文字와 甲兵은 中國과 같다.”¹⁹⁾ 하게 되었다. 분명하고도 쉽게 알 수 있듯이, 朝

17) 『宋書』 97 百濟傳

18) 『梁書』 54 百濟傳

鮮半島 三國의 中國 南北朝에 대한 외교는 또한 中韓 쌍방의 경제·문화 교류를 위하여 중요한 길을 제공하였다.

中國의 각 봉건정권의 朝鮮半島 三國에 대한 외교는 비록 朝鮮半島 三國과 같이 적극적으로 주동하는 모습은 없지만 그러나 또한 이것을 즐기며 싫어하지 않았다. 필경 해외 국가의 빈번한 공물의 헌납은 또한 이들 中國의 봉건통치자의 마음에 비할 수 없는 영예를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臣民들에게 자신의 皇權이 얼마나 신성하고 휘황한 것인가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또한 異域 使節들이 拜訪할 때 皇帝 자신을 위해 여러 가지 異域의 情調를 가지고 왔으니, 高麗樂·新羅樂·百濟樂이 隋朝의 궁정에서 연주되지 않았는가? 그밖에 여러 의도가 있는 中國 封建帝王들도 적극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국가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南朝 宋 元嘉 16년(439)에 宋 文帝는 “北伐하기 위해 璉(=高句麗 長壽王)에 詔書를 보내어 馬匹을 보내게 하니, 璉은 八百匹의 말을 보내었다.”²⁰⁾고 하였다. 또한 552년 北齊 文宣帝 高洋은 일찌기 高句麗와 외교 관계를 맺고 高句麗로 하여금 일차로 中國 流民 5000戶를 돌려 보내도록 하였다.²¹⁾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中國 魏晉南北朝시기에 朝鮮半島의 三國, 특히 高句麗와 百濟는 자신의 안전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中國 南北朝의 분열과 대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쌍방외교를 전개하였다. 비록 이러한 쌍방외교의 실제 효과는 크지 않지만, 韓半島 三國이 中國의 정치세력을 이용하여 자국의 정치적 맞수를 공격하는 경향은 바로 일관되게 隋唐時代의 中韓關係에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中國과의 외교가 가장 늦게 시작된 新羅의

19) 『北史』 94 高句麗 百濟 新羅傳

20) 『宋書』 97 高句麗傳

21) 『北史』 94 高句麗 百濟 新羅傳

경우 최후에는 마침내 唐朝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여 高句麗와 百濟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스스로 韓半島를 통일할 수 있었다.